

문희준 "19세 때 집 나간父, 母 장례식도 안 와"

등록 2025.07.29 08:18:36



[서울=뉴시스] 문희준. (사진 = 채널A '4인용 식탁' 캡처) 2025.07.2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[서울=뉴시스]이재훈 기자 = 그룹 'H.O.T.' 리더 문희준이 부친의 부재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털어냈다.

문희준은 28일 방송된 채널A 토크 예능물 '절친 토크멘터리 - 4인용식탁'에서 "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버지가 더 이해가 안 된다"면서 이렇게 밝혔다.

문희준에 따르면, 그의 부친은 문희준이 H.O.T로 데뷔를 하고 한 뒤 집을 나갔다. 당시 부친은 "너도 경제력이 있으니 집을 나갈게"라고 말했다.

문희준은 "진짜로 집을 나가셨다. 그때는 이해했다. 결혼하기도 전이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나 생각했다. 자식이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..."라고 전했다.

그렇게 문희준은 19세부터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. 이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다.

문희준은 "아이를 두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. 화가 나기 시작했다. 나는 그때 힘들었는데..."라고 토로했다.

문희준은 몇 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 부친에게 직접 부고를 전달했다. 하지만 그의 부친은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.

문희준은 "이해가 더 안 갔다.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될 수도 있다. 다만 옆에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"고 강조했다.

문희준은 과거 어렵게 살던 시절도 떠올렸다.

데뷔하던 시점에 집에 빚이 많았다면서 "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았다. 공용화장실을 썼다.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시작해서 일

부러 집을 볼 때 아이 방에 화장실이 딸린 집을 찾았다. 잼잼이 방은 화장실이 딸려 있다"고 흠족해했다.

문희준은 13세 연하인 그룹 '크레용팝' 출신 소울과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